‘막판 영끌’ 6월 가계대출 증가액 7조 육박

증가폭 작년 8월 이후 최대치

5대 은행 전달대비 4조9천억↑

당국 ‘강력 대출 규제’ 효과 주시

서울 집값 급등세에 이달에도 가계대출 증가액이 7조원에 육박하며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전례 없는 초고강도 규제를 하면서 다음 달부터 ‘고액 영끌’ 수요는 크게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문직 등 고소득자들의 신용대출이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외곽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 추가 보완 대책도 이어질 수 있다.

◇가계대출 증가폭 10개월만에 최대…‘영끌’ 주담대가 주도

29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5조8천억원가량 증가했다.

남은 기간 예정된 대출 실행액 규모 등을 고려하면 6월 증가액은 6조원대 후반 수준으로 예상된다.

올해 2월(+4조2천억원), 3월(+4천억원), 4월(+5조3천억원), 5월(+6조원)에 이어 5개월 연속 증가세다.

6월 증가 폭은 사상 최대 영끌 광풍이 불었던 지난해 8월(+9조7천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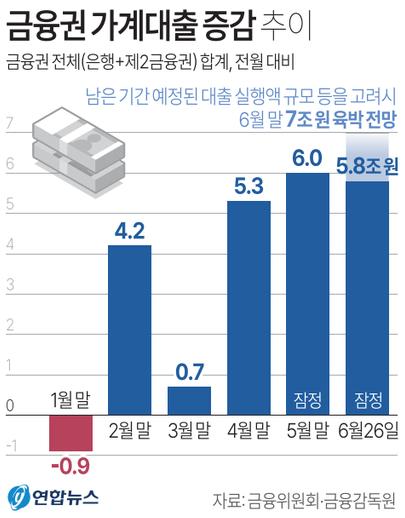
◇5대 은행 4.9조↑·하루 1천890억씩…신용대출도 4년만에 최대 증가폭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 26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52조9천948억원으로, 5월 말(748조812억원)보다 4조9천136억원 불었다.

하루 평균 약 1천890억원씩 증가했는데, 이 역시 지난해 8월(3천105억원)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크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이달 말까지 가계대출 증가액은 5조6천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전날부터 수도권 주담대가 최대 6억원으로 묶이는 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만큼, 이달 전체 월간 증가 폭이 5조원대 초반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가계대출 종류별로는 주담대(전세자금 대출 포함) 잔액이 597조6천105억원으로, 5월 말(593조6천616억원)과 비교해 26일 사이 3조9천489억원 늘었다.

신용대출도 103조3천145억원에서 104조3천233억원으로 1조88억원 증가했다. 이미 하루 평균 증가액(388억원)이 5월(265억원)의 약 1.5 배에 이른다.

◇강력 규제로 ‘영끌’ 직격…월간 증가폭 3조-4조 이하로 내려올듯

금융당국은 지난 27일 발표한 고강도 대출 규제 효과를 분석하며 가계대출 및 부동산 시장 흐름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주담대 한도 6억원’ 등 이번 대책이 전날부터 전격 시행됐지만, 주택 거래부터 대출 실행까지 한두달가량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본 게임’은 8월 대출 추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음 달 실행될 주담대는 이미 한두 달 전 승인이 난 경우도 많아 당장 7월 가계대출 수치가 확 꺾이긴 어렵다”며 “8월부터는 규제 효과가 본격 반영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에도 ‘실행액’이 아닌 ‘승인액’ 기준 등으로 규제 효과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한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를 절반으로 감축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가계대출 월간 증가 폭은 3조-4조원 아래로 관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해양에너지, 도시철도 2호선 건설현장 안전교육

시설물 보호·비상 상황 대응 중점

㈜해양에너지는 29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에서 도시가스 시설물의 안전 확보와 비상 상황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상반기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

도시철도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이재명 정부와 함께 광주야 날자’라는 광주시의 정책 기조에 적극 동참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도시가스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와 더불어 도시가스 시설물 보호와 함께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총 14개 공구 중 공사가 진행 중인 12개 공구의 현장 및 현장사무실에서 실시됐으며 총 473명의 관계자들이 참여해 도시가스 시설물 안내, 공정별 안전기준, 응급조치 및 비상상황 대응 요령 등 실무 중심의 교육을 받았다. 특히 실제 공사 중 발생한 아차사고 사례를 교육 자료로 활용해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공정별 맞춤형으로 구성돼 1단계 건설 현장에서는 도시가스 시설물 철거 및 복구 작업 시 준수사항 중심으로 2단계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안전수칙과 작업 절차에 대해 집중 교육이 이뤄졌다. /정은솔 기자

로또복권

〈제1178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5 6 11 27 43 44 /보너스 17		
1등	2,391,608,407	6개숫자일치
2등	53,744,010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3등	1,562,633	5개숫자일치
4등	50,000	4개숫자일치
5등	5,000	3개숫자일치

“장마철 제습기 준비하세요”

광주신세계 다양한 제품 선봬

구독 서비스 이용 사은품 증정

광주지역 장마가 7월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광주신세계가 장마철을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한 제습기를 선보인다.

본관 8층 LG전자에서는 LG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추천한다.

LG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는 듀얼 인버터 기술을 갖춘 에너지 효율 1등급 제품으로 전기료 부담 없이 제습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약풍 기준 32dB의 저소음 제습이 가능해 소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의류 건조 및 저소음 제습 등 상황에 따라 맞춤 제습 모드 기능을 지원해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

LG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는 구독 서비스를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일 수도 있다. 6년 약정 가전 구독시 월 요금은 2만3천900원이다. 광주신세계 LG전자에서는 제습기 구독 서비스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9만4천원 상당의 신발건조 키트를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7월까지 실시한다.

이 밖에도 광주신세계 삼성전자, 린나이, 쿠쿠, 로라스타, 루메나 매장에서도 제습기를 판매하고 있다. /정은솔 기자

광주신세계 LG전자에서 직원이 LG 오브제 컬렉션 제습기를 소개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투데이경제

콘진원 ‘2025 AI콘텐츠 인사이트’ 성료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9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 강남구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호텔에서 ‘2025 AI콘텐츠 인사이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콘텐츠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혁신 가능성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는 업계 관계자 250명이 참석해 산업의 주요 의제에 대해 폭넓게 공유했다.

‘AI콘텐츠 인사이트’ 행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콘텐츠산업 적용 현황 및 전망 ▲인공지능 콘텐츠 투자유치 및 사업화 전략 등 2개 세션 ▲인공지능 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패널 토론으로 구성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 백현정 리더가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제작 공정 변화를 언급하며 우수한 소규모 크리에이터의 부상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인공지능 콘텐츠 분야의 투자 동향과 사업화 전략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끝으로 ‘AI 콘텐츠 생태계 성장을 위한 사업화 전략과 협력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는 씨제이이엔엠(CJ ENM)과 빔스튜디오의 공동 제작 사례를 통해 대기업의 자본력·유통망과 스타트업의 기술력이 융합된 협업 모델의 성공 가능성이 강조됐다. /안태호 기자

한은 광주전남본부, G5 채용설명회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역 우수 인재의 입행을 돕기 위한 ‘2026년도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29일 “지역 우수 인재의 채용 지원을 위해 오는 7월8일 오후 2시30분부터 본부 1층 강당에서 ‘2026년도 종합기획직원(G5)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는 별도의 참가 신청 없이 누구나 참석 가능하며 한국은행 입행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국은행 채용담당자가 직접 참석해 한국은행의 주요 역할과 인재상, 종합기획직원(G5) 채용의 전형 절차 및 준비 전략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정은솔 기자